

강기정 “힘겹게 쟁취한 민주주의 과거로 회귀”

제63주년 3·15의거 기념식 “강제징용 정부 해법에 올분” 2018년 대법 판결 이행 촉구

강기정 광주시장은 15일 제63주년 3·15의거 기념식 및 제12회 광주3·15의거 기념식에서 “63년 전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일본 전범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2018년 10월30일 대법원 판결대로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정부의 제3차 변제 방식은 가해자인 일본과 전범기업의 사죄와 반성

없이 피해자인 우리가 그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굴종의교의 참담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시장은 “63년 전 수많은 민주화운동을 통해 쟁취한 지금의 민주주의도, 힘겹게 넘어섰던 과거 그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조국해방을 위해 목숨 바쳤던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애국선열들의 분노 어린 슬픔과 울분이 여전히 들리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 당사자들도 제3차 대위변제 방식을 거부한 만큼 정부는 그들의 목소리에 다시 귀 기울여야 한다”며 “이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문제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광주3·15의거의 의미와 정신 계승·발전을 통한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3월15일이 되면 가장 먼저 마산의거를 떠올리지만, 그보다 2시간 빠른 정오 12시45분 바로 이곳 광주 금남로에서 ‘국(哭) 민주주의 장송데모’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며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광주의 시위는 항쟁의 불씨가 돼 4·19혁명의 불꽃을 타오르게 한 기폭제가 됐다”고 밝혔다.

또 “그 힘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1987년 6월항쟁, 그리고 촛불혁명까지 도도히 흐르는 민주주의의 강이 돼 불의와 독재를 극복하고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에서 시작된 3·15의거와 독재정권을 끌어내린 4·19혁명은 민주주의의 서막을 연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다”며 “우리는 그 역사와 정신을 온전히 계승 발전시키며 새로운 광주시대로 나아가려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광주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올 때 늘 함께 힘을 모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광주라는 이름으로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며 “광주에서 찬란히 피어날 모든 시민 일상의 민주주의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바꿀 또 하나의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념식은 이날 오전 10시 빛고을시민

문화관에서 열렸다. 광주3·15의거 주역, 3·15와 4·19단체 회원, 지역 기관단체장과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는 4·19혁명 역사계승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으로 구성된 30여 명의 4·19합창단원이 참여, 3·15노래를 제창해 자리를 빛냈다.

광주시는 부대행사로 관련 단체와 함께 3·15의거 사진 전시회를 열었다.

또 광주3·15의거 발생 현장인 금남로공원에서 당시 시위 시간인 12시45분에 ‘국(哭) 민주주의 장송 데모 시위를 재현, 시민들에게 3·15의거의 숭고한 의미를 알렸다.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

‘주택화재 안전꾸러미’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됐다

전남소방본부 ‘전국 첫’ 선정

전남도가 고향사랑 기부제 확산과 주민 안전을 동시에 쟁길 수 있는 ‘주택화재 안전 꾸러미’를 기부금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주택화재 안전 꾸러미 답례품은 전남소방본부가 전남도에 제안해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채택됐다. 전국에서 처음 있는 사례다.

15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주택화재 안전 꾸러미’는 소화기, 화재알림경보기, 가스타이머 록 등 안전시설 3종을 설치하고 주택안전점검과 화재 예방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향사랑기부자가 ‘고향사랑e음’을 통해 답례품으로 주택화재 안전 서비스를 선택하면 요청하는 지역 소방서로 안전시설이 배송된다.

소방서 직원이 해당 주택으로 직접 방

문해 소화기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119 신고 요령 등 소방 안전교육과 주택 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화재 안전 꾸러미는 기부를 통해 고향사랑을 실천하고 동시에 고향집 부모님의 안전도 선물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전남도는 3월까지 공급업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4월부터 ‘고향사랑e음’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홍영근 전남소방본부장은 “고향사랑을 두 배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주택화재 안전 꾸러미가 전남의 안전을 책임지고, 나아가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 전남지역 주택화재는 2688건으로 전체 화재의 20%를 차지한 반면 주택화재 사망자 비율은 전체 사망자 113명 중 68명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어 주택화재 예방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최항지 기자



유기능 실천 다짐대회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경선 도의회 부의장과 신의준 농수산위원장, 강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 유장수 전남친환경농업협회 회장과 친환경농업인 등이 15일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열린 ‘2023 유기능 실천 다짐대회’에서 내빈 및 친환경농업인들과 유기능 중심의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해 대도약 전남행복시대를 열어가기로 결의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의대 유치 직결 ‘의료현안협의체’ 신속 재개 촉구

의대 유치 추진단 유치활동 논의 “의료현안협의체 중단 안타까워”

전남도가 국립의대 유치와 직결되는 의료현안협의체 신속 재개를 촉구했다.

전남도는 1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제3차 도내 의과대학 유치 추진단 회의를 열어 지난 1월 국회 대토론회 후속 활동 계획을 집중 논의하고, 2월 잠정 중단된 의료현안협의체 신속 재개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선 그동안의 의대 설립 관

련 동향을 공유하고 의대 유치 건의·활동 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전남지역 의대 설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언론사를 활용한 스팟광고를 비롯해 KTX, 수도권 전광판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와 국회에 의대 정원 확대 논의 시 ‘의대 없는 전남에 의대 신설’이 의제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건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추진단은 또 의료 여건

이 비슷한 타 시·도와 정책연대를 강화해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 해소 차원에서 ‘의대 신설’을 촉구하면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재개 등 상황을 지켜 보면서 적절한 유치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추진단장인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1월 재개됐던 의료현안협의체가 다시 중단돼 매우 안타깝다”며 “국회 대토론회를 통해 결집된 도민의 의대 설립 염원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최항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광주시, 공공기관·기업 협업 사회적문제 해결

오늘 사회적가치 매칭데이

광주시는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2023 광주 사회적가치 매칭데이를 16일 오후 2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4회째인 광주 사회적가치 매칭데이는 공공기관·기업과 사회적가치 실행 주체간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역발전, 공동체가치 확산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행사에는 광주·전남 공공기관·기업, 지역공동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참여공동체 인터뷰를 통해 37개 지역의제에 따른 공공기관·기업 자원을 매칭한다.

제안의제는 지난 1~2월 사회적경제 기업과 공동체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매칭데이에서는 △기후행동 △교육 △일자리 창출 △생활환경개선 △지역사회돌봄 △문화예술 △복지서비스 등 37개 의제를 만나볼 수 있다.

박상지 기자

전남도 ‘남도문예 르네상스’ 특화사업 추진

17개 시·군 20개 사업 선정

전남도가 올해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3년 남도문예 르네상스 시·군 특화사업’ 20개를 추진한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시·군의 우수한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영향 남도의 가치 확산과 문화예술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

올해는 총사업비 5억원을 들여 우수 전통 문화예술 핵심 자원을 적극 발굴해 도민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해와 달리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순천 유네스코 무형문화재의 열과 향구네 달빛소리의 전통국악 공연’, ‘광양 남도문예 르네상스 화살로드 활쏘기 대회’, ‘하순 금요일엔 고인돌 캠핑·고인돌 유적지 연계 캠핑 프로그램’, ‘강진 연극 모란이 피기까지 우리의 김영랑 시인을 소재로 한 창작공연’ 등이다.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양국진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우수한 전남의 문화예술자원을 확보해 즐기는 기회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항지 기자

광주시, 주택임차 청년에 보증금 이자 지원

年 최대 200만원까지

광주시가 무주택 청년을 지원하는 2023 청년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차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대출이자를 연 최대 200만원까지 최장 4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광주는 행이 연 2.5%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규 85명을 포함한 총

450여명이다.

신규 대상자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광주청년정책플랫폼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는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이다.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주택소유자·주거급여·한국도주주택공사 임대주택·바탕목 전세자금대출·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

(공공) 주거지원사업 참여자와 기존 청년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차지원사업을 지원 받은 사람은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대출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원이다. 대출이율 2.5% 중 광주시가 2%를 지원하고 0.5%는 자부담한다. 대출기한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은 개인별로 해야 한다.

임차보증금 지원주택은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 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선정결과는 4월14일 광주청년정책플랫폼에 게시한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안내한다.

박상지 기자